

세계문화유산: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 발전한 독자적인 종교적 전통

—세계유산과 구성자산의 가치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은 일본 잠복 기리시탄의 전통을 증명하는 유산군입니다. 선교사를 국외로 추방한 그리스도교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잠복 기리시탄은 신도(神道)와 불교 등 일본의 전통 종교나 일반 사회와 어우러지며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세계유산은 (1) 선교사가 국외로 추방됨에 따라 기리시탄이 잠복하게 된 계기, (2) 기리시탄이 은밀하게 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 그리고 (3) 선교사와의 재접촉을 계기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부활하게 된 전환기에 관한 12 가지 구성자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대항해 시대에 처음으로 아시아로 전파된 종교로, 일본은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선교 활동은 나가사키 지방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2 개의 구성자산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가사키 지방의 반도와 낙도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이란, 자연적으로 또는 인류에 의해 생성된 과거로부터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세계유산은 전 세계 각국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세계유산은 3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기념물과 건조물군, 유적이 포함됩니다. 이어 자연유산은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지형 및 지질, 생태계,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지 등입니다. 끝으로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지닌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수는 1,100 건이 넘으며, 그중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분류됩니다.

1. 하라 성터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의 주 전장터. 기리시탄은 이곳에서 패배함에 따라 잠복을 통해 은밀하게 독자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2. 히라도의 성지와 가스가 취락(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3. 히라도의 성지와 가스가 취락(나카에노시마 섬)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던 산이나 기리시탄이

순교한 섬을 숭상하며 은밀하게 신앙을 실천했다.

(사진: 히구라시 유이치)

(사진: 히구라시 유이치)

4.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아마쿠사의 취락민들은 친숙한 물건을 신앙의 도구로 삼아 은밀하게 신앙을 실천했다.

(사진: 히구라시 유이치)

5. 소토메의 시쓰 취락

소토메의 시쓰 취락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 유래된 성화상을 은밀하게 숭상함으로써 신앙을 실천했다.

6. 소토메의 오노 취락

소토메의 오노 취락민들은 지역 신사에 자신들이 신앙하는 대상을 은밀하게 모셔두고 숭상하며 신앙을 실천했다.

(사진: 히구라시 유이치)

7. 구로시마 섬의 취락

취락민들은 히라도 번의 목장터로 이주한 후 개척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했다.

8.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기리시탄은 신도(神道)의 성지였던 섬에 이주하여 공동체를 유지했다.

(사진: 히구라시 유이치)

9. 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가시라가시마 섬은 본래 천연두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사용된 곳이었다. 기리시탄들은 이곳에 이주하여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10.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취락민들은 고토 번의 이주 정책에 따라 미개척지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11. 나루시마 섬의 예가미 취락(예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

기리시탄은 나루시마 섬의 외진 바다와 가까운 골짜기에 이주하여 공동체를 유지했

다.

12. 오우라 천주당

잠복 기리시탄이 프랑스인 선교사와 만나 기리시탄의 잠복이 끝나는 계기가 된 ‘신도 발견’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